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55호 【루게 제 25198호】 주제 105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전 당, 전 군, 전 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전체 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었다

역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70일전투를 벌릴것을 호소

위대한 당의 평도파라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전민적 특대사변들로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며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해 폭풍처럼 내달리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혁명의 최전성기로 맞이하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넘쳐나시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기어올려서 우리 위한 오늘의 혁명적대진군은 수명의 유혹판결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전당, 전군, 전민을 총동원, 총발동시켜 만년시련을 맞아 헤치며 세상을 들었다놓는 기적을 편이여 창조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는 전체 당원들에게 혁명적대진군의 일장에서 힘차게 내달려 최상의 성과, 최고의 로획적위훈을 창조해나갈것을 호소하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주제혁명 위업수행에서 세기적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 당 제7차대회를 결행하는 김정은동지의 평도파라 당을 강화하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역사적리정표로 되게 하기 위하여 전체 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었다.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전달하는 회의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도당 책임비서들, 도인민위원회 위원장들, 당, 무력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책임일꾼들이 참가하였다.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편지에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70여년 역사와 더불어 당대회들을 분기점으로 인민의 운명과 생활에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나고 우리 조국이 새로운 비약의 보폭으로 전환과 기적의 년대들을 넘어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편지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사회주의를 압살하려고 최후발악을 다하고있는 오늘의 정세하에서 전체 당원들이 당과 혁명을 위한 비상한 헌신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것은 그대로 우리 당의 행도의 위대성에 대한 힘있는 실증으로, 우리의 강대성에 대한 시위로, 우리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응변으로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존함으로 빛나는 영광의 년대들에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평도를 받는 주제혁명의 새시대 전위투사들답게 우리의 수백만 당원들이 붉은 당기를 억세게 추켜들고 백두산대국의 새로운 변혁기를 보란듯이 열어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위대한 승리로 빛내여야 할 올해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완전성공과 같은 세상을 놀래우는 대장기, 대사변들로 온 나라가 계속 들끓게 하고 약동하는 기상으로 더 높이, 더 빨리 내달리자면 총정과 애국으로 피끓는 심장을 다 바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편지는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당원들이 수명옹위의 제일핵심, 수명의 뜻과 위업을 앞장에서 총직하게 받드는 열렬의 전위투사가 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모든 당원들이 혁명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오늘의 투쟁에서 선봉투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전례없는 생산실적, 기적창조의 로획적위훈, 최첨단들과의 과학기술성으로 제일가는 위훈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한 참된 당원의 선봉적역할을 다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려는 당의 원대하고 숭고한 구상을 총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우리의 투쟁은 자력자강의 대진군이며 그 승리의 비결은 과학기술중시에 있다는것을 자각하고 당원들이 현대과학기술을 남편저 습득하며 그 위력으로 비약의 지름길을 개척해나가는 최첨단들과의 선구자가 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편지는 모든 당원들이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를 로동당 만세의 우렁찬 함성이 편지를 전감하는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인민을 위하여 열사복무하는 전파배기혁명이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인민이 바라는것, 인민에게 필요한것이라면 천사만사를 제쳐놓고 무조건 하자고 나서는 당원, 인민을 위해 한가지 일이라도 훌륭히 해놓는데서 사는 보람을 찾을줄 아는 당원, 이런 열사복무의 정신이 체질화된 당원에게서만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책략이 나오고 남들이 걸은 백절유, 천절유도 단숨에 뛰어넘는 비약이 창조된다고 지적하였다.

온 나라에 거세찬 불길은 일으킬수 있는 위대한 힘은 바로 인민을 위한 열사복무에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당원들 모두가 인민생활에서 걸린 문제들을 푸는데 팔을 걷고 달려들어 인민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모가 나게 해제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주의와 인민사랑에 기초한 우리 사회의 대풍도를 더 높이 발양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면서 편지는 인민을 위해 무엇을 바쳤는가, 인민을 위해 어떤 창조물을 내놓았는가, 이것이 오늘날 당원의 진가를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지적하였다.

편지는 당 제7차대회를 위대한 승리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의 중요한 비결은 일꾼들에게 있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당은 모든 일꾼들이 자기 단위의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일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편지는 일꾼들이 대중의 심장에 혁신의 불을 달고 대중의 집체적지혜와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모든 일을 전개해나감에 전위조직과 지휘를 최선적으로 박력있게 해나감으로써 어디서나 비약의 열풍이 휘몰아치게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편지는 모든 당조직들이 당 제7차대회를 계기로 대중을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총괄기시키는 조직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데 화력을 총집중하고 수명의 유혹판결전, 당정책옹위전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몰아넣고나가며 대중의 양양된 기세와 혁명적열의에 맞게 사업방법과 투쟁기풍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당조직들이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보호하고 빛내여주는데 각별한 주목을 돌리고 자기 단위 성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어 온 나라에 일

심단결의 만세소리, 로동당만세 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편지는 조선로동당이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를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역사적대진군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룩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영생불멸의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혁명의 원동력으로, 일심단결을 백승의 보검으로, 최강의 핵억제력을 강성변영의 담보로 하여 신심드높이 전진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 주체조선이 어떤 기적을 또다시 안아오는가를 온 세계가 특특히 보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전체 당원들이 당의 편지를 피독심장에 받아안고 총진군의 불길음 새차게 일으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표명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편지에서 역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총정의 70일전투를 벌릴것을 열렬히 호소하였으며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전체 당원들이 이 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이어 70일전투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지휘부조직안이 발표되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총정의 70일전투에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감으로써 새로운 만리마속도로 비약하며 전진하는 위대한 당, 위대한 조선인민의 필승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쳐갈 혁명적열의로 가슴 불태웠다.

본사정치보도반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감히 가리워 보려는자들을 가차없이 징벌해버릴것이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

최근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총체적 완전성공에 일흔이 빠진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최후발악을 하고있다.

유엔무대에서 벌리는 히스테리적인 <제재>결의체력늘음도, 각종 핵전쟁살인장비들을 동원한 발광적인 군사적압박행동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대미문의 그 모든 <선책안>들도 우리의 의지를 꺾을수 없게 되자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마지막도박에 매달리고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최고수뇌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을 통하여 <제제붕괴>를 실현해보려는것이다. 이미 이전에 투입된 미제침략군 핵동력잠수함 <노스콜라이어>호가 부산항에 입항하고 <F-22A> 스텔스전투폭격기들이 오산미공군기지에 기동전개하였으며 미제침략군 특수작전부대가 연속 남조선에 밀려들고있다.

전시 우리의 최고지도부와 핵 및 전략로케트근기자들을 비롯한 중요전략적대상물타격을 작전임무로 삼고있는 미제침략군 폭군 1특수전단과 75특공연대, 미해병대 특공연대, 미공군 720특수전술전대, 미해군특수전단 <엘>함 등 특수작전부대들이 현지에 전개된 상태에 있다.

지난 시기 해외침략전쟁들에서 악명을 떨친 미제침략군 폭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거의 모든 특수작전부대들과 이른바 <죽적계식타격>에 동원되는 침략부대가 일시에 남조선에 쏟아부어지는 일찌기 없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끈 강행하게 된 <키 리프본>, <독수리 16>합동공사연습때 새로 꾸며낸 <작전계획 5015>의 핵심항목인 연합<참수작전>과 우리의 핵 및 전략로케트무력<제제거전>의 현실성을 검토하겠다고 서슴없이 떠들어대고있다.

적들이 떠드는 <참수작전>이라는것은 우리의 핵 및 전략로케트<사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명명권자>를 사전에 <제제>한다는 극악무도한 선제타격내용을 담고있다.

사태의 엄중성은 남조선괴뢰들이 동족압살을 위해 남강도 미국의 핵전쟁살인장비들을 마구 끌어들이다못해 <참수작전>실행에 혈안이 되어 동참해나가고있는것이다.

극악무도한 <참수작전>과 <제제붕괴>책동은 우리에게 대한 적대행위의 극치로 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자기의 삶의 전부보다 더 신성시하고있다.

그가 누구든 우리의 존엄성은 최고수뇌부를 위협만함이라든 건드린다면 추호의 용서도 아랑도 인내도 모르고 그 즉시 가차없이 징벌하는것이 우리 천만군민이다.

조성된 정세가 더이상 수수방관할수 없는 험악한 지경에 이른것과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노획한 우리 천만군민의 전백배 보복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천명한다.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혁명무력이 보유하고있는 감위력한 모든 전략 및 전술타격수단들은 이른바

<참수작전>과 <죽적계식타격>에 투입되는 적들의 특수작전무력과 작전장비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그들 사전에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의의 작전수행에 진입할것이다.

1차타격대상은 통족대결의 모략소굴인 청와대와 반통통치기관들이다.

우리 민족의 공동세뇌인 핵억제력과 우주개발성과물들을 괴물 물고 털어내면서 이 땅에 핵참화를 불어올 미국산전의 핵전쟁살인수단은 덮어놓고 끌어들이는 막근핵억제력대당이아말로 이 땅에 살아숨쉬 자격을 상실한지 오래다.

하늘의 태양을 가리워보려고 한 대역죄, 우리 삶의 터전을 없애버리려고 한 악행은 가장 참혹하고 가장 처절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어야 한다.

우리의 중대결고에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어리석은 군사적망동에 매달린다면 그 근원을 깡그리 소탕해버리기 위한 2차타격작전에 진입하게 될것이다.

2차타격대상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제침략군의 대조선침략기지들과 미국본토이다.

남강도 미제와의 최후결전을 위해 세기를 두고 다져온 우리 식의 타격전은 이 세상이 상상할수도 없는 기상천외한 보복전으로 될것이며 만가지 악의 소굴이 이 행성에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게 재가루로 만들어놓을것이다. 특히로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미국방형어리를 마음먹은대로 두들겨칠수 있는 세계가 가져본적이 없는 감위력한 최첨단공격수단들이 다 있다.

남강도 미국과의 관가리결전을 위해 한두해도 아니고 반세기 가 훨씬 넘도록 대를 이어가며 총력을 다해온 우리의 군사적능력에 대해 이제 는 숨길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미국은 우리가 치면 고스란히 맞아야 하고 들리우면 그대로 불에 타 없어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맞선 미국에 주어질 숙명적인 말로이다.

침략의 아성들은 우리의 조준권안에 들어있으며 보복타격의 격발기는 이미 당겨놓은 상태에 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무자비한 전벌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는가 아니면 뒤늦게라도 사죄하고 사래를 수습하는 길로 나가겠는가 하는 최후의 선택을 하여야 할것이다.

하늘에서 태양을 끌어내리겠다는것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것은 없을것이다.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용위하여 천검만첩의 성벽을 쌓은 우리 천만군민은 적대세력들의 모든 도발 책동을 가차없이 짓밟아버리고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의 지평을 향해 더 기운차게 질풍처럼 나갈것이다.

주제 105 (2016)년 2월 23일

평양

당은 부른다, 만리마를 탄 기세로 승리의 5월을

불패의 당, 위대한 정도

당중앙 받들어 우리는 승리 하리라

당중앙의 진군나팔소리가 울렸다. 70일전투제로!

위대한 당의 정도마라 특대사건들로 세계를 진감시키며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를 향하여 폭풍노도처럼 가는 보람찬 진군길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호를 받아안은 천만민중의 혁명적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하다.

혁명열, 투쟁열도 높이는 우리 조국의 벽한 승결!

파연 그 무엇이 우리 군대와 인민으로 하여금 필승의 신심과 락관념을 형성시켜 줄 것인가? 바로 투쟁열도 높이는 우리 조국의 벽한 승결!

오늘의 70일전투는 수명의 유혹관철전, 당정적용위전으로 전진, 전군, 전민을 총동원, 총발동시켜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가기 위한 총결사전,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동원전이다. 전 당파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지도권을 더욱 철저하게 세우기 위한 일대 사상전이기도 하다.

70일전투에 선악같이 펼쳐나선 천만민중에게 맥동하는 신념, 그것은 장에하는 원수놈까지 가리키시는 길은 온 승리와 영광의 길이며 지적자강의 기치높이 그 누구도 갈아엎을 수 없는 대당하고 용이 큰 작전을 펼쳐서 백두의 기상과 담력으로 우리 혁명을 확신성있게 이끌어 나가시는 그이께서 계시기에 최후승리는 우리것이라는 불변의 믿음이다.

당 제 7차대회를 빛내일 눈부신 성과들을 탄적합하게 마련하고 온 나라에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져야 할 때이다.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는 소집하지 않는다. 회에서 이례의 인민경제계획수행정황을 분석하신 어머이수령님께서는 누구든지 해결책에 대하여 생각할 것이 있으면 서슴치 말고 제기하라고 이야기하시었다.

말치 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베우는 눈부신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것은 우리 천만민중의 투쟁전열이며 기적이다.

이 땅 위에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놓았던 70일전투와 100일전투,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맞아내게 한 200일전투, 강성국가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킨 150일전투와 100일전투...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 어떤 유리한 조건이 있어 이 땅 위에 위대한 진군을 이룩한 것은 우리 인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언제나 끊임없는 투쟁을 일으켜가시는 절대위인들과 불변불욕의 정도와 자욱을 떠나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한 승리였다.

오늘도 천만민중은 대당하고 용이 큰 작전과 비범한 조직적수완, 세련된 정도로 70일전투를 조직지휘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를 잊지 않고있다.

주제 63(1974)년으로 말하면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전투가 시작된 때이며 6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의 역할을 하는 해였다. 그런데 이제 나라의 경제건설에서 원료와 자재의 부족, 수송의 긴장, 인공들의 사정대도로 하여 년간계획수행의 전망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 조성되게 되었다.

한편에 환한 미소를 지으신 어머이수령님께서 하시고 결심하면 경제문제도 얼마든지 풀수 있다. 문제는 하자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는 생각을 앞세우기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고있다고 하시며 당에서 한번 말아서 해보라고 하시었다.

회기가 끝난 후 한 일군을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 보고를 드린 이상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그처럼 심려하시는 경제문제를 줄자면 전투를 벌여야 한다고, 년말까지 70일전투를 벌여 한번 본때있게 내 말이라고 하시었다.

70일전투의 구상을 무르익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투승리의 기본요소를 사관들의 사상을 발동하는 데서 찾았다고 일군들과 근로자들로 하여 대대사상전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70일전투에서 당과 수령에게 충직한 혁명정신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하는 기본을 두고 사상교양사업을 3단계로 실시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선진선봉수단들을 총동원하도록 하시었다.

어머이수령님께 기어이 승리의 보고를 올릴 부라는 일념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00일전투의 나팔제기되는 크고작은 문제들을 천리해안의 예지와 정력적인 정도로 끌어 나가지고 밤에 낮을 이어가시었다.

그때 6월 중순에 있는 어느 한 회의에서 어머이수령님께서 우리 당 제 8차대회를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100일전투를 힘있게 벌일때 대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었다.

당의 부름따라 전제 인민이 당대회 빛나는 로력적성공과로 맞이하기 위한 100일전투에 떨쳐나섰다.

100일전투의 첫번째 계획을 넘쳐 수행한 정황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수치가 절대로 만족스러하지 말고 계속 긴장한 전투를 계속해 달라고 하시었다. 100일전투조직과 지휘를 더 잘하도록 이끄시었다.

대한 일련단심을 믿고 그들을 기적과 위훈, 무평과 전진, 승리와 번영으로 불려일으키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방식, 투쟁방식, 창조방식이다.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혁신은 절대위인들의 비범한 정도야말로 모든 승리의 결정적보담임을 전리로 확증하였다.

회후승리의 기치높이 계속혁신, 계속전진, 연속승리를 힘있게 선도하고있다. 70일말, 70일말을 철저히 지키고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광명성'호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전진을 힘있게 선도하고있다.

70일말, 70일말을 철저히 지키고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었다. 승리의 5월을 향하여 총돌격 앞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심장에 쏘아박고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남김없이 펼쳐갈 결의에 넘쳐있다. -남흥청년화학생업소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투쟁과 전진의 열풍을 일으키던 날에

위대한 당을 따라 계속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부각하는 애로와 난관을 파갈고 뚫고나가 승리를 더 큰 승리를 향하여 비약하며 전진하는 것은 절대위인들의 품에서 자란 우리 천만 2000일전투, 20000일전투로 공화국창건 40돐을 우리 조국력에서 위대한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내이실 승호한 뜻을 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제 77(1988)년 2월 200일전투를 시작하도록 하시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반드라 세리 메가왕. 브루나이 다루살람 추장, 국가수반. 하지 하싸날 불키아흐페하. 나는 브루나이 다루살람 국경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공동구호의 기본정신.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호를 받들고 당 제 7차대회를 향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 연속승리를 힘있게 선도하고있다.

조선 인권 연 구 협 회 고 발 장

오늘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마치 《인권대권》이라도 된듯이 행세하며 《인권문제》를 주실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행위를 더욱더 우습게 감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최악의 인권범죄로서의 저들의 실상과 국제의에서 저들이 감행하고있는 극악한 인권유린범죄행위들에 대하여서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가리우려 하고있다.

최근년간 주권국가에 대한 군사적 침략과 정부부패등으로 많은 나라와 지역들에서 내란과 분쟁이 격화되어 수천수만의 피난민이 발생하고 그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취급과 학대행위가 만연하고있는 현실은 미국과 서방의 인권침해범죄를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고있다.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인권총조사》로 지적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참혹한 인권실태와 인권유린민행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이 고발장을 발표한다.

에 의하여 무항히 유린되고있으며 사람들은 생명안전에 대한 항시적인 위협을 받으면서 불안과 공포속에서 살아가고있다.

미국잡지 《포린 폴리시》와 신문 《뉴욕 타임스》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해마다 총기류에 의해 수만명이 죽고 20여만명이 부상당하며 연간 총기류에 의한 살인사건이 1만 2 000건에 달한다.

미연방수사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에 미국에서는 100만건이상의 폭력범죄가, 2012년에는 121만 4 464건의 강력범죄가 감행되었다.

2015년 1월 28일 이탈리아의 북부지역에서는 각종 범죄행위를 일삼던 나찌파시스트가 적발되어 160여명의 범죄자가 체포되었다.

일본의 나고야시에서는 2015년 1월 28일 처녀가 도끼로 70대 늙은이의 머리를 내리쳐 무항히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계의 경악을 자아냈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와 위협 현상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시명을 지니고있는 경찰이 미국에서는 살인경찰로 그 악명을 떨치고 있다.

국제대사령의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2년 2월까지 미국에서는 적어도 500명이 경찰의 전기충격무기에 의해 사망하였는데 이 무기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들의 90%가 저수공인의 무방비상태에 있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9년 10월까지의 기간에 미국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죽은 주민들의 수는 수백명에 달한다.

2014년 11월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시의 한 경찰에서는 10대의 흑인소년이 손을 플라는 경찰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방의 총탄을 맞고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국의 형무소들에서는 8만명 이상이 오랜 기간 투감방에서 생활하고 있는에 국제대사령의 보고서에 의하면 아프리카나주에서만도 2 900여명구 미성년을 포함한 죄수 20명당 1명이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수감되어있다.

2015년 1월 5일부 미국의 인터넷신문 《글로벌 포스트》에 의하면 미국인구는 세계인구의 5%밖에 안되지만 수감자수에서는 세계 총수감자의 25%로 수감자율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앞선 자리에 있다. 미국잡지 《에코노미스트》에 의하면 미국인구 100명당 1명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는 로동에 대한 인간의 권리가 외면당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실업자수는 1 280만명에 달하여 그중 520만명은 만년이상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와 에스파냐에서 실업자수는 각각 334만 7 000여명, 481만 2 480여명(2014년 2월현재)이며 영국에서는 2013년 12월 부터 2014년 2월까지의 3개월 동안에 224만명에 달함으로써 실업률이 6.9%에 이르렀다. 도이쉴랜드에서는 2014년 8월에 실업자수가 그 전 달에 비해 더 늘어나 292만명에 달하였는데 이같은 현상에서는 2014년 1. 4분기에는 214만 8 300명에 달하였다. 2014년 3월 28일 일본총무청은 지난 2월에 실업자수가 233만 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경제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 기아와 빈궁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것으로 되어있다.

2013년 9월 10일 《글로벌 포스트》 웨브사이트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에서 수입이 가장 높은 1%에 달하는 가정의 수입이 31. 4% 늘어나 미국의 모든 수입계층의 95%를 차지하였으며 저소득층은 0. 4%밖에 늘어나지 못하였다고 전하였다.

유럽연합 총재회의 자료에 의하면 서방나라들에서도 1억 2 4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빈궁에서 허덕이고 있다.

유럽연합 성인권회에서 6명중 1명은 빈궁에 처해있으며 캐나다에서는 빈궁자수가 약 300만명에 달하고 있다.

2014년 1월 23일 미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에 살림집평균가격이 그 전년에 비해 11. 5%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11년간 집값은 사람들의 수가 44%나 증가되었는데 2012년에 11만여명의 사람들이 집

이 없어 거리에서 방랑생활을 하였으며 2013년에는 454명의 집없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사망하였다.

오스트리아에서는 2013년에 살림집평균가격이 그 전년에 비해 9. 8%이상 높아져 주요도시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집없이 생활하게 되었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 교육에 대한 권리는 돈에 의해 여지없이 깎아먹히고있으며 그 실현은 상상도 볼수 없다.

자료에 의하면 몇년전 미국과 캐나다 대학 학비의 학비는 년간 8 000-2만 5 000US\$, 프랑스에서는 1만 5 000-2만 5 000US\$, 도이쉴랜드에서는 1만 6 000US\$, 영국에서는 1만-1만 5 000US\$에 달하였다. 일본에서는 수업료가 국립대학인 경우 년간 71만 7 600부, 사립대학은 117만부에 달하고있다.

미국에서 2011-2012학년도에 4년제 국립대학에서 학비는 그 전 학년도에 비해 8. 3% 인상되었고 사립대학등록금은 공립대학보다 더 많았다.

일본의 한 사회단체가 고등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4분의 1이 자기들때문에 가족이 막대한 학부담을 져야하고있다고 하면서 돈때문에 마음놓고 공부할수 없는 불우한 처지를 토로하였다.

미국에서는 약탈행사는 물론 신문이나 책도 제대로 읽을수 없는 성인문맹자들이 부지기수이다. 미교육청장은 자기 나라에서 1 100만명의 성인들이 읽을줄도 쓸줄도 모르며 3 000만명은 겨우 수로나 할수 있는 정도라고 고백하였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국가와 사회의 관료와 보호회에서 가난과 빈궁에 시달리고 있다.

2013년 9월 미국인구조사국이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어린이빈궁자수가 2012년말까지 약 1 610만명에 달하였다. 전체 어린이의 22%에 해당 하는 1 700만명이 식량부족에 직면하였다.

미국보육청에서는 2010년에 미국에서 69만 5 000명의 어린이들이 학대를 받고 그중 약 1 60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79%는 부모들에 의해 초래된것이라고 전하였다.

일본에서는 자기 자식을 미구 학대하거나 살해하는것과 같은 상상도 못할 범죄가 다름아닌 여성들에 의해 식은죽먹기로 저질러지고있다.

《문명》과 《헌법》을 자랑하는 유럽나라들에서도 부모들이 어린이를 병구아리에도 넣고 전기를 부린다는가 하면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갖던아이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자식을 살해하기도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것이 예사로운 일로 되고 있다.

어린이들을 천대하고 학대하는 행위는 바로 동물세계에서 적용되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가정에까지 확대되어 가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사회적 병폐는 필연적사물이다.

여성혐시, 여성혐시사상이 뿌리깊이 남아있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 《여성중중》은 한낱 허울에 불과하며 여성들은 온갖 멸시와 차별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서방나라들에서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의 취업률은 남성들에 비해 14. 4% 낮다.

이탈리아에서 일자리를 가지고있는 여성들은 46. 9%밖에 안되며 그리스에서는 전국적으로 여성실업률이 남성실업률에 비해 7%나 더 높다.

미국에서 여성근로자들의 평균로임은 남성들이 받는 로임의 81%에 불과하며 같은 일을 종사하는 경우 아프리카계여성들은 남성이 받는 로임의 69%, 라틴아메리카계여성들은 58%를 받는다.

도이쉴랜드에서 남녀근로자들이 이 임금격차는 23%로 높아졌으며 이탈리아에서 여성근로자들은 남성근로자들에 비해 평균 16%나 적은 임금을 받고있다. 일본에서도 낮은 수입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가는 근로자들이 70%이상인 여성들이 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800여만명의 여성들이 폭력범죄의 피해를 입고있는데 그들에 대한 성폭행범죄건수만 2 년평균 50여만건에 달한다. 유럽에서는 유럽적으로 여성들의 12-15%가 폭력범죄의 피해자로 되고있다고 발표하였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 감행되는 여성학대와 폭력은 여성의 존엄과 인격을 무항히 유린하고 여성의 권리옹호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공공연히 도전해나서는 범죄행위로

된다.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 정책화되어왔으며 인종이 다르다는 단 한가지 이유로 하여 배척하고 탄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흑인은 백인에 비하여 더 가혹한 형벌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대표적으로 흑인이 5g의 마약을 지참하면 5년간의 금고형을 받지만 백인은 마약 500g을 지참했을 때 5년간의 금고형을 받는다.

미로풍성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전국적인 흑인실업률은 백인들에 비해 2배나 높으며 굶주림에 허덕이는 흑인들의 수는 백인들보다 3배나 많다.

2011년 11월 미국인구조사국이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흑인들의 빈곤율이 11. 1%인데 비해 흑인들의 빈곤율은 25. 4%였으며 라틴아메리카계, 아시아계주민들의 빈곤율은 각각 28. 2%, 16. 7%에 달하였다고 한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 정부의 부조정치에 공공연히 감행되는 인권유린행위는 문명국 연영의 《중실지》라고 하는 미국과 서방이라는 말이 얼마나 험악한 인권범죄자인가 하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국제민주주의연구소》,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재단》 등을 통하여 동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 6 500만US\$ 이상의 자금을 제공하였다.

2011년에 미국경제개발성원들은 콜리비아의 반정부단체들에 자금을 대주면서 반정부부응을 실현하려다가 실패하였다.

미국은 지난 시기에 베네수엘라주재 미국대사관안에 이 나라의 《민주화위원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맡아보는 《정치이양사무소》를 내고 200만US\$의 사업비를 할당하는 한편 반정부조직들을 규합하고 막대한 재정적지원을 주었다.

서방의 적지 않은 나라들도 다른 나라들의 반정부단체들을 자금을 대주는 등으로 해당 나라의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정부부패를 합세하고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선거들에 개입하고 《국제적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자유롭지 못하다.》, 《부정성이 있다.》 등으로 비방중상하면서 내정에 간섭하고있다.

미국은 2013년 베네수엘라대통령 선거시 교외인물들이 직접 나서서 공정한 선거를 해야 한다느니,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며 갖대기를 해왔으며 선거가 진행될 다음에는 그 과정을 놓고 시비질 하였다.

2011년 1월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벨라루스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하였을 때 《부정협박 선거》 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제재를 받도록하였다. 이 제재에는 벨라루스정부의 공식인물 158명에 대한 미국과 서방나라들에로의 제재금지원 등이 포함되었었다.

미국은 2011년말 로씨야에서 대통령선거를 위한 국가회의선거과정에서 일련의 부당한 문제들이 일어나자 이를 구질로 부정선거니 뭐니 하면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운운하였다.

미국의 반로씨야정책에 발을 맞추어 유럽의회는 2011년 12월 로씨야에서 진행된 국가회의선거와 관련한 후방과 전선기구들에 수많은 제재조치를 호소하였다.

2010년 1월 26일 스페르가사 마린다 라치파사시 대통령으로서 당선되었을 때에도 미국은 그 무슨 민족어로 압박하는데 그 내용의 80%가 양기식문화로 전파되고 다른 나라들의 사상과 문화 등을 비방중상하는것으로 일관되어있다.

미국에 주창하는 유럽동맹의 여러 나라들이 일면 등에서 다른 나라들의 사상과 제도를 비방중상하고 헐뜯으면서 사람들의 진전한 사상의식을 미비시키는 만주적인 편견정신을 대대적으로 만들어 류포시키는 범죄행위를 감행하고있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외교관조진정보를 전파하여 인준하고 믿음성있는 소식을 홍보함을 인간의 중요한 권리를 침해하고있다.

세계적인 인터넷하부구조의 4분의 3을 장악하고 국제공보부응의 대부분을 통제하고있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정보와 정의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반인민적이며 반인권적인 저능의 사회제도를 미화분신하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다국적군의 이라크침략이 사건에 조작가공된 허위정보에 기초하여 감행되었다는것은 새삼이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과 서방의 적지 않은 언론들은 우리 공화국의 인권제도와 인권의 인권옹호실상을 왜곡조작하여 세계에 류포시키고있으며 미국에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와 핵문제발생원인이 미치도 평화국에 있는것이 어름을 조작하고 전파시키는 범죄행위를 세기를 이어가며 계속하고 있다.

어느 한 나라의 국제문제전문가는 핵위협은 미국으로부터 오고있다고 하면서 《서방인론들은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는 한 민족을 괴롭히기 위해 인양이라는 핵대국의 가장 지렬한 처사에 올라나는 명명구부러이다.》라고 미국과 서방을 단죄하였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반정부단체들을 비호하고 정부부패로 적극 부추기는 범죄행위로 서습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지난 기간 무항행위를 앞삼하기 위해 과거와 살인을 전문으로 하는 수십개의 테로그룹을 조직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미국신문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면 미국무성은 중동의 어느 한 나라 반정부단체에 은밀히 자금을 지원하고있는데 그 액수는 1 200만 US\$에 달한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민주주의》를 도와주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의 비정부기관들 특히 《미

국민주주의연구소》,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재단》 등을 통하여 동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 6 500만US\$ 이상의 자금을 제공하였다.

2011년에 미국경제개발성원들은 콜리비아의 반정부단체들에 자금을 대주면서 반정부부응을 실현하려다가 실패하였다.

미국은 지난 시기에 베네수엘라주재 미국대사관안에 이 나라의 《민주화위원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맡아보는 《정치이양사무소》를 내고 200만US\$의 사업비를 할당하는 한편 반정부조직들을 규합하고 막대한 재정적지원을 주었다.

서방의 적지 않은 나라들도 다른 나라들의 반정부단체들을 자금을 대주는 등으로 해당 나라의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정부부패를 합세하고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선거들에 개입하고 《국제적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자유롭지 못하다.》, 《부정성이 있다.》 등으로 비방중상하면서 내정에 간섭하고있다.

미국은 2013년 베네수엘라대통령 선거시 교외인물들이 직접 나서서 공정한 선거를 해야 한다느니,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며 갖대기를 해왔으며 선거가 진행될 다음에는 그 과정을 놓고 시비질 하였다.

2011년 1월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벨라루스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하였을 때 《부정협박 선거》 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제재를 받도록하였다. 이 제재에는 벨라루스정부의 공식인물 158명에 대한 미국과 서방나라들에로의 제재금지원 등이 포함되었었다.

미국은 2011년말 로씨야에서 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국가회의선거과정에서 일련의 부당한 문제들이 일어나자 이를 구질로 부정선거니 뭐니 하면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운운하였다.

미국의 반로씨야정책에 발을 맞추어 유럽의회는 2011년 12월 로씨야에서 진행된 국가회의선거와 관련한 후방과 전선기구들에 수많은 제재조치를 호소하였다.

2010년 1월 26일 스페르가사 마린다 라치파사시 대통령으로서 당선되었을 때에도 미국은 그 무슨 민족어로 압박하는데 그 내용의 80%가 양기식문화로 전파되고 다른 나라들의 사상과 문화 등을 비방중상하는것으로 일관되어있다.

미국에 주창하는 유럽동맹의 여러 나라들이 일면 등에서 다른 나라들의 사상과 제도를 비방중상하고 헐뜯으면서 사람들의 진전한 사상의식을 미비시키는 만주적인 편견정신을 대대적으로 만들어 류포시키는 범죄행위를 감행하고있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외교관조진정보를 전파하여 인준하고 믿음성있는 소식을 홍보함을 인간의 중요한 권리를 침해하고있다.

세계적인 인터넷하부구조의 4분의 3을 장악하고 국제공보부응의 대부분을 통제하고있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정보와 정의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반인민적이며 반인권적인 저능의 사회제도를 미화분신하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다국적군의 이라크침략이 사건에 조작가공된 허위정보에 기초하여 감행되었다는것은 새삼이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과 서방의 적지 않은 언론들은 우리 공화국의 인권제도와 인권의 인권옹호실상을 왜곡조작하여 세계에 류포시키고있으며 미국에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와 핵문제발생원인이 미치도 평화국에 있는것이 어름을 조작하고 전파시키는 범죄행위를 세기를 이어가며 계속하고 있다.

어느 한 나라의 국제문제전문가는 핵위협은 미국으로부터 오고있다고 하면서 《서방인론들은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는 한 민족을 괴롭히기 위해 인양이라는 핵대국의 가장 지렬한 처사에 올라나는 명명구부러이다.》라고 미국과 서방을 단죄하였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반정부단체들을 비호하고 정부부패로 적극 부추기는 범죄행위로 서습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지난 기간 무항행위를 앞삼하기 위해 과거와 살인을 전문으로 하는 수십개의 테로그룹을 조직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미국신문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면 미국무성은 중동의 어느 한 나라 반정부단체에 은밀히 자금을 지원하고있는데 그 액수는 1 200만 US\$에 달한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민주주의》를 도와주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의 비정부기관들 특히 《미

국민주주의연구소》,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재단》 등을 통하여 동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 6 500만US\$ 이상의 자금을 제공하였다.

2011년에 미국경제개발성원들은 콜리비아의 반정부단체들에 자금을 대주면서 반정부부응을 실현하려다가 실패하였다.

미국은 지난 시기에 베네수엘라주재 미국대사관안에 이 나라의 《민주화위원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맡아보는 《정치이양사무소》를 내고 200만US\$의 사업비를 할당하는 한편 반정부조직들을 규합하고 막대한 재정적지원을 주었다.

서방의 적지 않은 나라들도 다른 나라들의 반정부단체들을 자금을 대주는 등으로 해당 나라의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정부부패를 합세하고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선거들에 개입하고 《국제적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자유롭지 못하다.》, 《부정성이 있다.》 등으로 비방중상하면서 내정에 간섭하고있다.

미국은 2013년 베네수엘라대통령 선거시 교외인물들이 직접 나서서 공정한 선거를 해야 한다느니,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며 갖대기를 해왔으며 선거가 진행될 다음에는 그 과정을 놓고 시비질 하였다.

2011년 1월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벨라루스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하였을 때 《부정협박 선거》 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제재를 받도록하였다. 이 제재에는 벨라루스정부의 공식인물 158명에 대한 미국과 서방나라들에로의 제재금지원 등이 포함되었었다.

미국은 2011년말 로씨야에서 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국가회의선거과정에서 일련의 부당한 문제들이 일어나자 이를 구질로 부정선거니 뭐니 하면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운운하였다.

미국의 반로씨야정책에 발을 맞추어 유럽의회는 2011년 12월 로씨야에서 진행된 국가회의선거와 관련한 후방과 전선기구들에 수많은 제재조치를 호소하였다.

2010년 1월 26일 스페르가사 마린다 라치파사시 대통령으로서 당선되었을 때에도 미국은 그 무슨 민족어로 압박하는데 그 내용의 80%가 양기식문화로 전파되고 다른 나라들의 사상과 문화 등을 비방중상하는것으로 일관되어있다.

미국에 주창하는 유럽동맹의 여러 나라들이 일면 등에서 다른 나라들의 사상과 제도를 비방중상하고 헐뜯으면서 사람들의 진전한 사상의식을 미비시키는 만주적인 편견정신을 대대적으로 만들어 류포시키는 범죄행위를 감행하고있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외교관조진정보를 전파하여 인준하고 믿음성있는 소식을 홍보함을 인간의 중요한 권리를 침해하고있다.

세계적인 인터넷하부구조의 4분의 3을 장악하고 국제공보부응의 대부분을 통제하고있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정보와 정의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반인민적이며 반인권적인 저능의 사회제도를 미화분신하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다국적군의 이라크침략이 사건에 조작가공된 허위정보에 기초하여 감행되었다는것은 새삼이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과 서방의 적지 않은 언론들은 우리 공화국의 인권제도와 인권의 인권옹호실상을 왜곡조작하여 세계에 류포시키고있으며 미국에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와 핵문제발생원인이 미치도 평화국에 있는것이 어름을 조작하고 전파시키는 범죄행위를 세기를 이어가며 계속하고 있다.

어느 한 나라의 국제문제전문가는 핵위협은 미국으로부터 오고있다고 하면서 《서방인론들은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는 한 민족을 괴롭히기 위해 인양이라는 핵대국의 가장 지렬한 처사에 올라나는 명명구부러이다.》라고 미국과 서방을 단죄하였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반정부단체들을 비호하고 정부부패로 적극 부추기는 범죄행위로 서습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지난 기간 무항행위를 앞삼하기 위해 과거와 살인을 전문으로 하는 수십개의 테로그룹을 조직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미국신문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면 미국무성은 중동의 어느 한 나라 반정부단체에 은밀히 자금을 지원하고있는데 그 액수는 1 200만 US\$에 달한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민주주의》를 도와주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의 비정부기관들 특히 《미

국과 서방나라들에서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권리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가 엄중히 유린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는 진보적인 사상을 탄압하는데 총사하는 인원이 약 20만명, 폭력조직만 해도 2만 1 000여개나 있으며 특히 미중앙정보국과 미연방수사국은 주민들에 대한 조사차 등을 만들어놓고 그들의 정치적사상적태도뿐아니라 개인생활자료까지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조급리조도 분석시킨다고 생각되는 경우 루이유려를 불문하고 체포, 투옥, 고문하고있다.

《국제인권법》, 《스미스법》, 《공산주의자활동통제법》 등은 진보적인 사상을 선택하고 믿는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이라는 미명하에 억제하고 혹독하게 탄압할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행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았고이는 독일나라이다. 비정기투표 《연명성 프로젝트》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58여만명이 선거가 있다고 하여 선거권을 빼앗긴 상태에 있다.

문투리기정권인 미국대통령선거비용을 본다면 1860년 대통령선거시었던 손사 소한이것 10만US\$까지도 2000년에 10억 US\$, 2004년에는 17억US\$에 달하였다.

2012년에 재선을 노리고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오바마의 이전 파파슈프주 지사 롬니가 벌린 대통령선거경쟁에서는 2012년 10월말경에 벌써 20억여US\$가 경질되었다.

미국은 어느 한 단계는 《살인의 원의 정형율가 100%인데 그중 40%는 억만장자이다. 또한 파자 3차체의 하원의원선거에서는 현직재선율이 98%이상이며 새 사람이 참여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국회외교부의 반인민성과 보수성을 폭로하였다.

미국은 어느 한 시의단체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2012년에 국회의원들의 절반에 달하는 288명이 막장정치수이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고 돈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는 인권을 위한 참다운 정치, 공정한 국가판리가 전혀 실현될수 없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다른 민족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가혹하게 억압하고 탄압하고있다.

2011년 3월 미상원사법위원회 청문회장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종교적차별 총건수의 14%는 주인의 1%도 되지 않는 이슬람교도들을 대상으로 한것이다.

2015년 1월 《도교신봉》과 AFP통신은 최근 프랑스에서 이슬람교사원들과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방파, 폭력사건 등이 20차례 일어났다고 전하였다.

도이쉴랜드에서는 반이슬람교운동이 조직적격을 띠고 진행되고있는데 2015년 10월에 《메기다》(시방의 이슬람교회를 반대하는 유럽인들)가 조직되고 그 본을 마서 바이에른주에서 8개의 지역별 반이슬람교단체들이 출현하였다. 스페르에서는 2014년에 이슬람교사원의 66%가 폭력사건으로 물릴 직손해를 입었으며 44%가 여러가지 형태의 공격위협을 받았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인간의 초보적인 생존권, 사회경제적권리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있다.

미국에서 생명에 대한 권리는 범람하는 총기류를 비롯한 각종 범죄

에 의하여 무항히 유린되고있으며 사람들은 생명안전에 대한 항시적인 위협을 받으면서 불안과 공포속에서 살아가고있다.

미국잡지 《포린 폴리시》와 신문 《뉴욕 타임스》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해마다 총기류에 의해 수만명이 죽고 20여만명이 부상당하며 연간 총기류에 의한 살인사건이 1만 2 000건에 달한다.

미연방수사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에 미국에서는 100만건이상의 폭력범죄가, 2012년에는 121만 4 464건의 강력범죄가 감행되었다.

2015년 1월 28일 이탈리아의 북부지역에서는 각종 범죄행위를 일삼던 나찌파시스트가 적발되어 160여명의 범죄자가 체포되었다.

일본의 나고야시에서는 2015년 1월 28일 처녀가 도끼로 70대 늙은이의 머리를 내리쳐 무항히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계의 경악을 자아냈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와 위협 현상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시명을 지니고있는 경찰이 미국에서는 살인경찰로 그 악명을 떨치고 있다.

국제대사령의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2년 2월까지 미국에서는 적어도 500명이 경찰의 전기충격무기에 의해 사망하였는데 이 무기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들의 90%가 저수공인의 무방비상태에 있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9년 10월까지의 기간에 미국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죽은 주민들의 수는 수백명에 달한다.

2014년 11월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시의 한 경찰에서는 10대의 흑인소년이 손을 플라는 경찰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방의 총탄을 맞고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국의 형무소들에서는 8만명 이상이 오랜 기간 투감방에서 생활하고 있는에 국제대사령의 보고서에 의하면 아프리카나주에서만도 2 900여명구 미성년을 포함한 죄수 20명당 1명이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수감되어있다.

2015년 1월 5일부 미국의 인터넷신문 《글로벌 포스트》에 의하면 미국인구는 세계인구의 5%밖에 안되지만 수감자수에서는 세계 총수감자의 25%로 수감자율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앞선 자리에 있다. 미국잡지 《에코노미스트》에 의하면 미국인구 100명당 1명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는 로동에 대한 인간의 권리가 외면당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실업자수는 1 280만명에 달하여 그중 520만명은 만년이상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와 에스파냐에서 실업자수는 각각 334만 7 000여명, 481만 2 480여명(2014년 2월현재)이며 영국에서는 2013년 12월 부터 2014년 2월까지의 3개월 동안에 224만명에 달함으로써 실업률이 6.9%에 이르렀다. 도이쉴랜드에서는 2014년 8월에 실업자수가 그 전 달에 비해 더 늘어나 292만명에 달하였는데 이같은 현상에서는 2014년 1. 4분기에는 214만 8 300명에 달하였다. 2014년 3월 28일 일본총무청은 지난 2월에 실업자수가 233만 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경제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 기아와 빈궁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것으로 되어있다.

2013년 9월 10일 《글로벌 포스트》 웨브사이트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에서 수입이 가장 높은 1%에 달하는 가정의 수입이 31. 4% 늘어나 미국의 모든 수입계층의 95%를 차지하였으며 저소득층은 0. 4%밖에 늘어나지 못하였다고 전하였다.

유럽연합 총재회의 자료에 의하면 서방나라들에서도 1억 2 4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빈궁에서 허덕이고 있다.

유럽연합 성인권회에서 6명중 1명은 빈궁에 처해있으며 캐나다에서는 빈궁자수가 약 300만명에 달하고 있다.

2014년 1월 23일 미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에 살림집평균가격이 그 전년에 비해 11. 5%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11년간 집값은 사람들의 수가 44%나 증가되었는데 2012년에 11만여명의 사람들이 집

이 없어 거리에서 방랑생활을 하였으며 2013년에는 454명의 집없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사망하였다.

오스트리아에서는 2013년에 살림집평균가격이 그 전년에 비해 9. 8%이상 높아져 주요도시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집없이 생활하게 되었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 교육에 대한 권리는 돈에 의해 여지없이 깎아먹히고있으며 그 실현은 상상도 볼수 없다.

자료에 의하면 몇년전 미국과 캐나다 대학 학비의 학비는 년간 8 000-2만 5 000US\$, 프랑스에서는 1만 5 000-2만 5 000US\$, 도이쉴랜드에서는 1만 6 000US\$, 영국에서는 1만-1만 5 000US\$에 달하였다. 일본에서는 수업료가 국립대학인 경우 년간 71만 7 600부, 사립대학은 117만부에 달하고있다.

미국에서 2011-2012학년도에 4년제 국립대학에서 학비는 그 전 학년도에 비해 8. 3% 인상되었고 사립대학등록금은 공립대학보다 더 많았다.

일본의 한 사회단체가 고등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4분의 1이 자기들때문에 가족이 막대한 학부담을 져야하고있다고 하면서 돈때문에 마음놓고 공부할수 없는 불우한 처지를 토로하였다.

미국에서는 약탈행사는 물론 신문이나 책도 제대로 읽을수 없는 성인문맹자들이 부지기수이다. 미교육청은 자기 나라에서 1 100만명의 성인들이 읽을줄도 쓸줄도 모르며 3 000만명은 겨우 수로나 할수 있는 정도라고 고백하였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 정부의 부조정치에 공공연히 감행되는 인권유린행위는 문명국 연영의 《중실지》라고 하는 미국과 서방이라는 말이 얼마나 험악한 인권범죄자인가 하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국제민주주의연구소》,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재단》 등을 통하여 동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 6 500만US\$ 이상의 자금을 제공하였다.

2011년에 미국경제개발성원들은 콜리비아의 반정부단체들에 자금을 대주면서 반정부부응을 실현하려다가 실패하였다.

미국은 지난 시기에 베네수엘라주재 미국대사관안에 이 나라의 《민주화위원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맡아보는 《정치이양사무소》를 내고 200만US\$의 사업비를 할당하는 한편 반정부조직들을 규합하고 막대한 재정적지원을 주었다.

서방의 적지 않은 나라들도 다른 나라들의 반정부단체들을 자금을 대주는 등으로 해당 나라의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정부부패를 합세하고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선거들에 개입하고 《국제적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자유롭지 못하다.》, 《부정성이 있다.》 등으로 비방중상하면서 내정에 간섭하고있다.

미국은 2013년 베네수엘라대통령 선거시 교외인물들이 직접 나서서 공정한 선거를 해야 한다느니,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며 갖대기를 해왔으며 선거가 진행될 다음에는 그 과정을 놓고 시비질 하였다.

2011년 1월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벨라루스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하였을 때 《부정협박 선거》 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제재를 받도록하였다. 이 제재에는 벨라루스정부의 공식인물 158명에 대한 미국과 서방나라들에로의 제재금지원 등이 포함되었었다.

미국은 2011년말 로씨야에서 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국가회의선거과정에서 일련의 부당한 문제들이 일어나자 이를 구질로 부정선거니 뭐니 하면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운운하였다.

미국의 반로씨야정책에 발을 맞추어 유럽의회는 2011년 12월 로씨야에서 진행된 국가회의선거와 관련한 후방과 전선기구들에 수많은 제재조치를 호소하였다.

2010년 1월 26일 스페르가사 마린다 라치파사시 대통령으로서 당선되었을 때에도 미국은 그 무슨 민족어로 압박하는데 그 내용의 80%가 양기식문화로 전파되고 다른 나라들의 사상과 문화 등을 비방중상하는것으로 일관되어있다.

미국에 주창하는 유럽동맹의 여러 나라들이 일면 등에서 다른 나라들의 사상과 제도를 비방중상하고 헐뜯으면서 사람들의 진전한 사상의식을 미비시키는 만주적인 편견정신을 대대적으로 만들어 류포시키는 범죄행위를 감행하고있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외교관조진정보를 전파하여 인준하고 믿음성있는 소식을 홍보함을 인간의 중요한 권리를 침해하고있다.

세계적인 인터넷하부구조의 4분의 3을 장악하고 국제공보부응의 대부분을 통제하고있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정보와 정의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반인민적이며 반인권적인 저능의 사회제도를 미화분신하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다국적군의 이라크침략이 사건에 조작가공된 허위정보에 기초하여 감행되었다는것은 새삼이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과 서방의 적지 않은 언론들은 우리 공화국의 인권제도와 인권의 인권옹호실상을 왜곡조작하여 세계에 류포시키고있으며 미국에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와 핵문제발생원인이 미치도 평화국에 있는것이 어름을 조작하고 전파시키는 범죄행위를 세기를 이어가며 계속하고 있다.

어느 한 나라의 국제문제전문가는 핵위협은 미국으로부터 오고있다고 하면서 《서방인론들은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는 한 민족을 괴롭히기 위해 인양이라는 핵대국의 가장 지렬한 처사에 올라나는 명명구부러이다.》라고 미국과 서방을 단죄하였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반정부단체들을 비호하고 정부부패로 적극 부추기는 범죄행위로 서습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지난 기간 무항행위를 앞삼하기 위해 과거와 살인을 전문으로 하는 수십개의 테로그룹을 조직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미국신문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면 미국무성은 중동의 어느 한 나라 반정부단체에 은밀히 자금을 지원하고있는데 그 액수는 1 200만 US\$에 달한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민주주의》를 도와주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의 비정부기관들 특히 《미

국민주주의연구소》,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재단》 등을 통하여 동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 6 500만US\$ 이상의 자금을 제공하였다.

2011년에 미국경제개발성원들은 콜리비아의 반정부단체들에 자금을 대주면서 반정부부응을 실현하려다가 실패하였다.

미국은 지난 시기에 베네수엘라주재 미국대사관안에 이 나라의 《민주화위원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맡아보는 《정치이양사무소》를 내고 200만US\$의 사업비를 할당하는 한편 반정부조직들을 규합하고 막대한 재정적지원을 주었다.

서방의 적지 않은 나라들도 다른 나라들의 반정부단체들을 자금을 대주는 등으로 해당 나라의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정부부패를 합세하고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선거들에 개입하고 《국제적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자유롭지 못하다.》, 《부정성이 있다.》 등으로 비방중상하면서 내정에 간섭하고있다.

미국은 2013년 베네수엘라대통령 선거시 교외인물들이 직접 나서서 공정한 선거를 해야 한다느니,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며 갖대기를 해왔으며 선거가 진행될 다음에는 그 과정을 놓고 시비질 하였다.

2011년 1월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벨라루스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하였을 때 《부정협박 선거》 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제재를 받도록하였다. 이 제재에는 벨라루스정부의 공식인물 158명에 대한 미국과 서방나라들에로의 제재금지원 등이 포함되었었다.

미국은 2011년말 로씨야에서 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국가회의선거과정에서 일련의 부당한 문제들이 일어나자 이를 구질로 부정선거니 뭐니 하면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운운하였다.

미국의 반로씨야정책에 발을 맞추어 유럽의회는 2011년 12월 로씨야에서 진행된 국가회의선거와 관련한 후방과 전선기구들에 수많은 제재조치를 호소하였다.

2010년 1월 26일 스페르가사 마린다 라치파사시 대통령으로서 당선되었을 때에도 미국은 그 무슨 민족어로 압박하는데 그 내용의 80%가 양기식문화로 전파되고 다른 나라들의 사상과 문화 등을 비방중상하는것으로 일관되어있다.

미국에 주창하는 유럽동맹의 여러 나라들이 일면 등에서 다른 나라들의 사상과 제도를 비방중상하고 헐뜯으면서 사람들의 진전한 사상의식을 미비시키는 만주적인 편견정신을 대대적으로 만들어 류포시키는 범죄행위를 감행하고있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외교관조진정보를 전파하여 인준하고 믿음성있는 소식을 홍보함을 인간의 중요한 권리를 침해하고있다.

세계적인 인터넷하부구조의 4분의 3을 장악하고 국제공보부응의 대부분을 통제하고있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정보와 정의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반인민적이며 반인권적인 저능의 사회제도를 미화분신하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다국적군의 이라크침략이 사건에 조작가공된 허위정보에 기초하여 감행되었다는것은 새삼이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과 서방의 적지 않은 언론들은 우리 공화국의 인권제도와 인권의 인권옹호실상을 왜곡조작하여 세계에 류포시키고있으며 미국에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와 핵문제발생원인이 미치도 평화국에 있는것이 어름을 조작하고 전파시키는 범죄행위를 세기를 이어가며 계속하고 있다.

어느 한 나라의 국제문제전문가는 핵위협은 미국으로부터 오고있다고 하면서 《서방인론들은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는 한 민족을 괴롭히기 위해 인양이라는 핵대국의 가장 지렬한 처사에 올라나는 명명구부러이다.》라고 미국과 서방을 단죄하였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반정부단체들을 비호하고 정부부패로 적극 부추기는 범죄행위로 서습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지난 기간 무항행위를 앞삼하기 위해 과거와 살인을 전문으로 하는 수십개의 테로그룹을 조직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미국신문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면 미국무성은 중동의 어느 한 나라 반정부단체에 은밀히 자금을 지원하고있는데 그 액수는 1 200만 US\$에 달한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민주주의》를 도와주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의 비정부기관들 특히 《미

국민주주의연구소》,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재단》 등을 통하여 동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 6 500만US\$ 이상의 자금을 제공하였다.

2011년에 미국경제개발성원들은 콜리비아의 반정부단체들에 자금을 대주면서 반정부부응을 실현하려다가 실패하였다.

미국은 지난 시기에 베네수엘라주재 미국대사관안에 이 나라의 《민주화위원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맡아보는 《정치이양사무소》를 내고 200만US\$의 사업비를 할당하는 한편 반정부조직들을 규합하고 막대한 재정적지원을 주었다.

서방의 적지 않은 나라들도 다른 나라들의 반정부단체들을 자금을 대주는 등으로 해당 나라의 정세를 불안정하게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을 마련해 주시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발표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요에는 《조국통일3대헌장과 북남선언문을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 조국통일의 생명선으로!》라는 구호도 제시되어있다.

애국의 구호를 받아들인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국통일위업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시어 수령님들의 뜻과 유언대로 조국통일3대헌장과 북남선언문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반드시 이룩할 정세의 의지가 역마차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해주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조국통일3대헌장의 빛나는 구절으로서 장군님께서 우리 겨레에게 남기신 고귀한 통일에 약속하신다. 그 누구도 바꿀수 없는 확고한 사상과 비범한 명도로 통일위업완성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우리 민족은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잊을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분열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우리 겨레에게 불행의 조국을 안겨주기 위해 한평생 온갖 모험과 실험을 다 바치시어 나라의 자주적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은 그대로 조국과 민족을 위한 고귀한 헌신이었다. 인류역사의 갈피마다에는 수많은 위인들과 그들이 이룩한 공적에 대해 기록되어있다. 하지만 우리의 장군님처럼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오로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온몸을 바쳐 불태우시며 시대와 민족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린 그런 정세의 애국자, 민족의 자애로운 어머니는 없었다.

물어보면 1990년대는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중대한 시련의 시기였다.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주체 83(1994)년 7월 우리 민족은 하늘처럼 맑고 따르던 어버이수령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었다. 크나큰 비애와 상실의 아픔으로 온 겨레가 목놓아 울고 산천초목도 비분에 떨었다. 인간의 초보적인 피상마저 상실한 내외반통일세력들은 때를 만난듯이 《북의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논파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해치고 조국통일위업을 말살하려고 메를 지어 밀며들었다. 조국과 민족의 흥망성쇠를 관건이라 하는 중대사들이 이배처럼 우리 장군님의 어깨에 무겁게 실린적은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비범한 심정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겨레를 먼저 생각하셨다. 자기 민족, 자기 겨레를 그 누구보다 열렬히 사랑하시었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함양이든 새 세기와 더불어 분열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조국통일의 새 시대를 펼쳐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었다. 그에게서 조국통일의 밝은 미래가 실체화한것은 조국과 민족에 대한 불모다 뜨거운 사랑, 자주통일위업의 승리에 대한 절대적 확신, 좌불우퇴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고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시 확고한 결심을 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점고정하신 애국헌신의 정성은 우리 민족의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해가는 가슴벅찬 6.15공동

시대를 펼쳐주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을 이룩할 애국의 용단을 내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명도로 인해 주체 88(2000)년 4월 북과 남이 7.4북남공동성명에서 민족적 조국통일3대원칙을 채택하고 친선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평양에서 북남최고위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음을 알리는 보도가 장엄한 피성마당 울려 퍼졌다. 민족통일사상 처음으로 되는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은 어버이수령님의 유를 받들어 장장 반세기가 넘는 우리 민족의 분열사를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단합의 새 장을 펼쳐서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창설의 의지에 의하여 마련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희망이 명실공히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데도 지향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한미합을 나는 동쪽끼리 손을 맞잡고 민족의 밝은 미래를 개척해나가기 위한 자주사상과 애국의 깊은 뜻, 조국통일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가 함축된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는 남측성원들의 찬갈을 공감 불려일었다.

마침내 주체 89(2000)년 6월 15일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북남공동선언은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 무절한 민족자주사상과 불타는 애국의 의지를 안시고 6.15공동선언을 승리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평화와 번영의 새 민족사를 개척할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주체 96(2007)년 10월 10일 한미합의 정상회담을 마련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화상봉의 날

숭고한 민족애와 친리애인의 예지로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앞길을 활짝 열어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채택한 한미합이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과업을 밝힌 친선강령인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된것은 분열된 민족의 고통을 하루빨리 가지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희망찬 대일을 앞당기기 위해 온갖 모험과 실험을 다 기울인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결단 이 안이든 특대사건이었다.

조국통일운동에서 공론자로 아로새겨져있는 북남선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이 남은 고귀한 애국유산이다. 불타는 조국애와 민족애, 비범한 명도력과 숭고한 용모를 지니시고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을 현명하게 명도하여 통일위업실현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무궁무진한 우리 민족사와 더불어 영원히 불변하였다.

오늘 조국통일위업의 진두에는 또 한분의 정세의 위인이시며 애국애족의 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서세신다.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삼천리강토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것은 그의 정세의 신념이다.

세태의 우리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명도를 높이 받들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애족의 교훈을 받들며 조국통일3대헌장과 북남선언문을 철저히 고수리행함으로써 자주통일의 역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 앞날이었다.

본사기자

위업에 더는 영영한 수뇌의 력사

70여성상에 걸치는 우리 력사, 그것은 위대한 수령의 명도로 따라 천만민중이 하나로 똘똘 뭉친 중엄한 폭풍우를 헤치며 승리와 영광만을 붙은 기록에 새겨진 백전백승의 력사, 민족의 자주적운동명예의 깃발을 휘날려 주면서 온 겨레를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온 글자줄은 력사이다.

당의 창건을 선포한 때로부터 장구한 기간 한 반의 로선상이나 나침반 없이 자기의 혁명적의지를 변함없이 고수하며 백성의 의지를 품고있고있는 우리 당의 모습을 보며 넘겨져 메를 겪을 글자줄을 잊지 못하고있다.

남동겨레들이 우리 당의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 백성의 력사를 위대한 수령님들의 거룩한 존함과 하나로 이어놓으며 정세위인들을 열렬히 칭송하고있고있는 너무나 당연하다.

조선로동당이 백성만을 떨치는 강령의 대오로 지나나 높은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는것은 대우의 천출위인들을 높이 모시지 못하면 된다.

지금도 사람들은 우리 혁명애에 유례없이 간고한 시련이 닥쳐왔던 지난 해 90년대에 탁월한 명도로 사회주의수호전을 승리로 이끌고 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잊지 못하고있다. 그처럼 간고했던 력사의 시련속에서도 우리 근대 인민이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쫓듯이 수호하며 주체혁명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킬수있었던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로수하고 세련된 명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명도가 있어 우리 당은 선군위업, 민족자주위업의 승리의 기치로 더욱 존엄했었으며 그 기치때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의 대문을 열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 6.15 통일시대로 펼쳐졌었다.

조국과 민족애에 이렇듯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린 위인을 영원한 총비로서 높이 모시고있는 조선로동당이기에 우리 당에 대한 남동겨레의 찬탄이 그토록 격조 높았기때문이다.

지금 남동겨레들은 《김정일주방위장군님께서 평등하여오신 북의 로동당이 김정일원수님의 명도없이 앞으로 변함없이 승리만을 이룩할 것이라는 의심한다.》고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총모의 정을 한껏 펴치고 있다.

그렇다.

또 한분의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며 우리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주체의 혁명적당, 선군의 기치 높이 전진하고 투쟁하는 위력한 당, 원만함을 따먹이 한층에 얹어 내세워주는 자애로운 어머니당으로 존엄해지며 자기의 기록에 영원히 승리를 아로새길 것이다.

본사기자 라 설 하

반역정치는 민심의 배격과 규탄을 면치 못한다

구린내나는 썩은 정치풍토

인민을 기만우롱하는 시정태세가 정치관을 주 무대로는 남조선에서는 선 거제인면 어찌없이 민심을 끄드기는 역겨운 광경이 펼쳐지곤 한다. 시종 일신의 안일과 환락만을 추구하고 반역을 일삼아 남조선정국태세에 있어 허위와 기만이 없는 선거에서 환포도 얻을 수 없게끔한다.

4월에 있게 되는 총선거(20대 《국회》의 선 거제)를 앞둔 지금의 남조선정국은 동등한 민심을 희유하기 위해 서로를 물고뜯으며 선거공작을 마비시키는 여악정국을 부추리고 있다. 소란하게 그치지않고. 이번 선 민정출을 계기로 여악정 민정출에 반성을 가지는 주민들의 심리를 악 용하여 저마다 민정정당 임을 지체하면서 상대 당을 비난하고 각종 공작 들을 발표하였는데 그 들은 그야말로 삼은 소 대카리도 폭소를 터칠 태세이다.

머칠진 《새누리당》은 《민생에 초점을 맞추우 는》 새 공약들을 발표 하면서 야당이 《경제의 발전을 잡고있다.》고 비인칭을 동구했다. 야당이 정 치목적으로부터 경제발전 정책의 《국회》투표를 거세게 정계위기가 심화되고있다는 루 정정이다. 한편 야당이 더불어 민주당은 현 정권자의 《새누리 당》을 겨냥하여 《대법관 거짓말

다섯가지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선세인상을 통한 민생살리기》공약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인민들은 선 거가 다가올수록 《민생살리기》는 나쁜 여악의 공약들이 터 진 판자처럼 쏠려나올것이 비 미안한 것이 너무나 높아지면서 총선거정국은 치열한 개박을판 으로 변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문제는 여악정들이 저들에 대한 원한과 심정으로 공표하여왔은 민심을 녹여줄 심산으로 저지마라 그 램만한 선거공약들을 발표하였는 데 사반들은 그것을 소 삼보듯 하 며 외면하고있는것이다. 지금껏 민 생을 짓밟아온 당파의 비직선성에 안 풀무하러자신이 정작 선거가 막 무세오자 민생이 어찌되고제고 하 면서 적어 어울리지 않게 대해 인민들 은 조소와 비난을 퍼붓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이런 공약을 들고나오는 민선투표때를 한 두번만 쓴것이지 아니다.

지난 19대 《국회》의원선거 당 시 《새누리당》 비상대결위원 회를 비난하고 각종 공작 들을 발표하였는데 그 들은 《선진화》 《약속》을 자기의 장점으로 내세우며 《가정행복 5대약속》 등 각종 《복지》공약 을 발표하고 《국회》가 구성되면 100일 이내에 그 리행에 들어 갈것이라고 광고하였다. 《경제 민생》공약도 그 때 한 남조선 집권자가 일이 실패하도록 떠든것이 다. 보수당파의 공약판에서는 당장이라도 경제와 민생이 주철 될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말짱지체 불파하였다. 보수당파가 들고나 온 공약들의 최후성과 기만성은 여찌없이 드러났다. 《가정행복 5대약속》을 내놓고 지지부

결하던 청와대담당주인의 입에 서는 《대형형편이 어렵다.》는 수석이 되어나갔고 《100일이 는 대의 집행》 약속도 풀려나고 말았다. 《경제민주화》공약이라 는것은 이미 경제관료공약으로 락인되었고 허울좋은 《복지》 약들은 몽땅 하늘로 날아가 민 생은 모진 도탄속에 빠져있다.

그런데 지금 시정태세가 망상 에 사로잡혀 그 현 리공과 기만 의 정치를 또다시 펼치고있으니 거기에서 귀를 기울인 사람이 어 디에 있겠는가. 이제는 정치인 의 감투를 쓴자들이 내뿜는 소 리라면 콩으로 메주를 쓴대도 뿐이 안들겠는것이 남조선의 민심이다. 여악정들이 선거를 앞두고 경제적으로 민생공약들 을 쏟아내고있는데 대해 인민들 은 조소와 비난을 퍼붓고있다.

남조선정계라는것이 민선투 표에 환상하여 인민들을 기만우 롱 하는것을 업으로 삼는 정치사기 관들의 역겨운 사석정사기에 거 거에서는 정국주도권쟁탈을 위 한 개박이 일어나는 하루도 그 려가고있다.

능력은 없고 보고 듣고 배운 것이라하는 허풍과 기만, 사기 혐정합탁 없는 정세태세를 살판 치는 이런 비열한 정치풍토에서 통정들은 구린내내가 있다.

그러나 험잡군들이 아무리 난 다진다 해도 이번 선거가 반역 정계에 대한 민심의 존엄한 심 판장으로 될것이라는것은 너무 나도 명백하다. 남조선인민들이 기성정치인들에 대한 민심의 혐 오감과 배격을 보여주는 여론조 사결과들을 전하고있는것은 우 연치 않다.

본사기자 장 운 남

단 평 기 생 충 들 의 서 식 장

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남조선에서 각 당각색의 정당들이 오늘같이 구제기롭고 하고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7월까지 국회의원선거 관리위원회에 선거 등록을 마친 정당수는 무려 22개에 달한다. 앞으로 《거지당》을 비롯한 별 의뢰 미천한 명칭을 가진 당들이 더 늘어날 예정 이라고 한다.

비탈이 온갖을 알려낸 한모음이던 흑하다고 하였다. 옛이 어중어중어중이던 《국회》의원선거 를 노리고 쭈뼛머머머머 내밀고있는 이 하나의 사적인 놓고보아도 남조선《국회》라는것이 얼마 나 역력한 정치신상태세의 소굴인가 하는것을 짐작할수 있다.

남조선에서 《국회》의원선거는 한갖 지부를 위 한 수단이 불과하다. 《국회》에 나이지 않고 건달 을 부려도 폭동 일으키는 년같은 제척날고라도 자

청와대안방주인이 짓뭇개버린 여성인권

하지만 이제 와서 그들은 자기 들이 너무도 이리저리 오산 했다는것을 독둑히 깨닫고 있다.

사실 그들의 요구는 소박하였 다. 사회악적인 모진폭과 여성 들, 아이들을 먼저 생각할라 는것, 마음놓고 결혼하고 아이 를 키울수 있는 환경을 마련 하라는데, 성폭행이나 위침문제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해달라 는것이였다. 하지만 그들의 요 구는 무참히 짓밟혔고 오히려 여성인권은 더욱 처참히 유린되 었다.

청와대안방주인의 베풀어지 고 찬탄한 여성관, 반인륜적인 여성정책이 그 증오한 원인이 다. 시정도 못 가보고 아이도 못 낳아보았으므로 녀자들의 심 리를 모르며 피척스럽고 《독가

과 독심안이 가득한 악녀》, 《열 을공주》라는 정을 받을 정도로 평행한 인간인 괴리점점자가 여성인권에 괴리된 만무 하였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률과 고통을 세계최저, 남녀임금격차 세계최고...

바로 이것이 청와대안방주인 의 《여성정책》에 대한 기막힌 성격이다. 오죽했으면 한 국 제기구가 헤마다 발표하고있는 《세계정책차보고서》에 남조선 이 마지막자리를 차지하고있었 는가.

남조선에서는 반인륜적악행 이 초래한 흑심한 경제판과 늘 이라는 교육비, 양육비로 하여 수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것 이 못되고있다. 《미우의 도둑》 으로 불려우는 우울증으로 심을

피부보수장구의 민역정치로 여성들을 통괄물로 여기는 피척적인 문화가 성행하고있는것은 여성인권을 말살하는 근원적 요인이 되고있다.

이런 속에 여성에 출인의 60%이상이 성병예방 장요당 하고 유병하는데 수포를 느끼고 있잖았는가? 남조선에서는 아마도 여성의 소박한 요구조차 무참 히 짓밟히는 사람 못살 세상 이다.

지난 《세월》호사건때 괴리점 점자가 단 한명의 생존자도 구출하지 못하고 아무런 뉴스 대책도 내놓지 못한것을 놓고 남조선여성들은 《이 땅에서는 아이들도 제대로 키울수 없 다.》고 분노를 터지웠다. 《세 월》호상사와 같은 비극은 남조 선에서 매일과 같이 펼쳐지고 있다.

본사기자 허 열 민

5 면 예 시 계 속

피난민사태는 저들의 탐욕과 사리 사욕에 미쳐내버리는 미국과 서방의 지배주의적이며 제민주주의적간섭정책의 필연적결과이다.

말진도상나라들의 사회정치적문제 불에 개입하여 민족간, 종족간 대립 과 시모를 격화시키고 분열을 야기 시키며 각종 분쟁문제들을 요구하고 끼여들어 그것을 더욱 확대시키는것이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상부적인 수 법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와 예멘 등 미국의 점근 마수야 펼쳐 모든것이 황폐화되고 전란을 겪고있는 많은 나라들이 피난민대군, 피난민현충군으로 전락하고있다.

11사건을 기초로 미국이 개시 한 《민태로전》은 주인국가들을 대상 으로 한 국가대도행위이며 새로운 변 종의 침략전쟁정책이다.

미국 AP통신은 미국이 《민태로전》 의 미명하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에서 벌인 전쟁, 수리아내전의 장기 화, 리비아정권의 붕괴후 무정부상태 의 지속 까지 피난민위기의 근원이 라고 밝혔다.

인디아신문 《민주스판 타임스》는 《피난민위기의 전범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오로지 피난민의 절대다수는 아프가니스탄, 이라

크, 수리아, 리비아 등 《민태로전》의 피해자들이며 2001년 미국주도의 테러가 일으킨 아프가니스탄전쟁은 현대판피난민문제의 주요일화점이라고 폭로하였다.

미국과 서방이 《민태로전》의 명분으 로 강행하는 수리아에 대한 공습은 전례없는 피난민들을 산생시키고 있다.

수리아는 지금 세계최대의 위기정 계고있으며 400만명의 수리아인들이 피난의 길을 찾았고있다.

미국이 그 누구의 승인으로 요청도 없이 수리아를 마구 폭습하고있는것 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쟁의 원 속이며 그 확대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미국과 서방의 조종으로 일어난 《아랍의 봄》으로 인한 장기적인 전란 은 지역국가들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주민들이 살 곳을 찾아 정처없이 떠 돌아다니게 하였다.

유엔은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의 피 난민수가 차례 3 800만명안팎이었 던것이 2011년에는 4 000만명을 훨씬 넘었으며 2014년에는 불과 3년만에 40%가 증가한 5 950만명 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그 러면서 이처럼 피난민수가 급격히 증가한것 은 중국, 아프리카 등 세계곳곳에서 크고작은 내전들이 일어났고있기때 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오늘 세계적으로 수많은 피난민들 이 발생하고 그로 하여 피난민들의 권리보장문제가 국제적으로 심각한 인민문제로 부각되고있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에 의해서 초래 되는 피난민문제자체가 인민우호행위 이며 따라서 피난민정책을 만들고 그 들의 권리를 보장하는것은 미국과 서방 이 지닌 국제법적책임이고 의무이다.

그러나 미국과 서방은 저들의 책임을 회피하며 피난민들의 권리를 심히 유린하고있다.

피난민위기의 장본인인 미국은 유럽이 저들에게 추종한 대가로 피 난민사태에 말려들었지만 피난민위 기의 책임을 달라고 할조류 부당해 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강권내 불보 듯 하고있다.

초기에는 피난민들을 받아들이며 생색을 내던 많은 유럽나라들도 그 무는 사회적책임인듯이, 때로조차 시 위자들이 《피난민들은 수적으로 아 가라.》고 위협하면서 혐의시위를 벌 이는 등 일대 혼란이 일어났고있다.

프랑스와 도이쉴랜드를 비롯한 서 유럽나라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공여 지책으로 피난민들을 《분류하여 할 함》에 대한 제안을 내놓자 동유럽 나라들은 불분명한 제안이라고 항변 하여 반대해나서고있다. 이로 하여 서 유럽과 동유럽사이의 모순과 대립 이 표면화되고있다.

1 500명규모의 《유럽극경해안경비 대》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피난민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등 이리저리한 구실로 스웨데에는 자국을 넘어온 피난민들중 45%에 달하는 10여만명을, 핀란드가 2만명 을, 오스트리아가 5만명을 추방 하겠다고 발표하고 스위스는 1 000SR(스위스프랑)이상의 현금 이나 귀중품을 가지고있으면 회수하 고 명수증을 발급하는 조치를 취하 였으며 만마르도 피난민수용비를 보충한다는 명목으로 매 피난민 들로부터 1 400\$이상의 귀중품을 압수하는 등 스위스의 본분과 배 역하였다고 한다.

도이쉴랜드와 영국에서 당국의 피 난민정책을 비난하는 반정부시위를 이 현일 계속되고있으며 렐스스와 세 스크, 슬르노프에서는 수적으로 시 위자들이 《피난민들은 제정의로 아 가라.》고 위협하면서 혐의시위를 벌 이는 등 일대 혼란이 일어났고있다.

프랑스와 도이쉴랜드를 비롯한 서 유럽나라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공여 지책으로 피난민들을 《분류하여 할 함》에 대한 제안을 내놓자 동유럽 나라들은 불분명한 제안이라고 항변 하여 반대해나서고있다. 이로 하여 서 유럽과 동유럽사이의 모순과 대립 이 표면화되고있다.

나서자만 정은 고향을 떠나 타향 으로, 타향에서 또다시 타국으로 쫓겨가는 피난민들의 비참한 처지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세계도처에서 매일 헤미힐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사생활전으로 피난의 길을 택하고있지만 그들을 기다려주 는것은 결코 그 어떤 형용사나 인성 인적품도 아니다.

수많은 피난민들이 유럽으로 건너 가다가 바다에 수장되어 무리죽음을 당하고있다.

2015년 4월 18일 피난민들을 싣고 리비아를 떠나 이탈리아로 가 던 선박이 침몰되어 한겨레에 800 여명이 죽어 참가가 밧이졌으며 그 로부터 얼마후에는 수백명의 이주인 들이 떠 백만에서 40명이 집적되어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피난민수는 2015년에는 10개월동안에 만도 3 320여명에 달하였다.

유럽평에 가까스로 받을 들러놓은 피난민들의 처지도 죽은 죽음과 다 를바 있다.

그들은 《민원용호조치》로 자라한 유럽나라들의 의도적이며 불공적인 인권을유린행위로 말미암아 참기 이려 운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다.

유럽은 2015년 8월까지 피난민을 비롯한 주요도시들의 건설장과 개인

반역 《정권》 심판을 위한 공동투쟁 선언

남조선의 민주로흥, 농민회 흥행명, 민권연합을 비롯한 20여 개 단체들이 《2016 총선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였다.

18일 서울에서 단체결성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지난해 현 《정권》이 생존본토 장을 요구하는 민중총합기투쟁 현장에 치단벽을 설치하고 탄압과 멸을 올렸다고 성토했다.

이지도 민중총합기투쟁을 구 실로 로동자, 농민들을 추속하 고있다고 하면서 이 땅에는 민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있다.

인민들과 인민단체들은 유럽나라 들의 피난민들에 대한 강제추방, 재 산술수 등 제2차 세계대전시기 나 치스의 유대인학살을 연상케 하는 비 인종적적화사서 소원피난민학살 등 국제적악행에 대한 위반으로 단 다고 비난하고있다.

오스트리아의 어느 한 신문은 피 난민문제를 산생시킨 미국이 지금에 와서는 유럽나라들이 피난민들을 비 인간적으로 다루고있으며 유럽 통틀 에 흔시하고있는데 대해 폭로규탄하 였다.

오늘 미국과 서방의 극악한 인권 유린행위를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감행되는것이며 이것은 참다못 인권보장제도가 수립되어야 한 해결될 문제이다.

인민의 불모지, 동태이며 인권유 린의 왕국인 미국과 서방은 묘사자 기를 《인권용호의 표본》으로 호시하 고 말고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에 대 해 퍼즐지 말아야 하며 제 집안문제가 바 로잡는데 집중해야 할것이다.

미국과 서방은 저들이 저지른 온갖 인권범죄로 하여 력사와 인류앞 에서 그리고 정의와 진리의 국제법 정에서 반드시 중엄한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

주제105(2016)년 2월 23일
본 문